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 실시

✎ 엄정규 기자 | ㉠ 승인 2023.06.11 14:18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편동현)는 9일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장수읍 하비마을 한 농가에서 허물어진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무진장지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선정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을 무상 수리하며 지역사회에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편동현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엄정규 기자 crazycock27@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